19-20세기 조선 의가들의 '『본초강목』 재구성하기'

오준호
한국한의학연구원

'Reorganization of 『BenChaoGangMu』' of medical practitioners in Joseon Dynasty in the 19th-20th centuries

Oh Junh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ere are three kinds of books written by different authors in different regions in the 19th century. These books include 『BonChoYuHam (本草類函)』 (1833), 『BonChoBuBangPyeonRam (本草附方便覽)』 (1855) and 『BonChoBang (本草方)』 (1860?). However, these books are very similar in terms of content and format. They were written in the format of large medical books and they contained prescriptions made up with 1-2 kinds of herbals depending on diseases.

These three books which could not affect each other appear to have these commons. The reason is that these books were newly edited based on Bubang (附方) in 『BenChaoGangMu』 depending on diseases and 『BenChaoWanFangZhenXien』 (1712) written by Cai, lie Xian (蔡烈先) was used as the reference. Woodblock printed book of 『BenChaoGangMu』 viewed by medical practitioners in Joseon Dynasty in the 19th century mostly had 『BonChoManBangChimSun』 which could be called '『BenChaoGangMu』 Bubang index' as the appendix. All authors of three books tried to make 'reorganization of 『BenChaoGangMu』' by using 『BonChoManBangChimSun』 as the important reference. Work of 'reorganization of 『BenChaoGangMu』' focusing on symptoms being made in the 19th century was made a few times in the 20th century. 『YangMuSinPyeon』 and 『SuSeBiGyeol』 published in 1928 were outcomes of these works in the 20th century.

'Reorganization of 『BenChaoGangMu』' being made in 19th-20th centuries showed great interest for 『BenChaoGangMu』 in the medical community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 addition, the practical scholarship of Joseon Dynasty gave 『BenChaoGangMu』 the value as the collection of prescriptions rather than the concept of book for herbal medicine. Prescriptions of reorganized 『BenChaoGangMu』 have been spread out to many book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us, the impact of 『BenChaoGangMu』 on society in the late Joseon Dynasty seems to be much larger than what has been known so far.

Key words : Korean medical history, Korean traditional medicine, 『BenChaoGangMu』, 『BenChaoWanFangZhenXien』

Ⅰ. 머리말

조선 후기 『본초강목』의 전래는 한중 의학교류 측면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의학사 및 지성사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은 의학서적뿐만 아니라 당대 각종 서적에서 본초와 관련된 지식들을 수집함으로써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많은 지적 호기심을 야기시켰다. 때문에 『본초강목』은 『산림경제(山林經濟)』(1710년경) 등 조선에서 간행된 수많은 의서와 문집에 직간접적으로 인용되었다.

하지만 조선 후기라는 맥락에서 『본초강목』의 의미를 정리하는 작업은 근래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최근의 의사학 분야에서 진행된 몇몇 연구들은 그러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오재근 등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탐구되지 못했던 『본초부방편람』과 『본초정화』가 『본초강목』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이들 서적들이 『본초강목』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체화하였다고 결론지었다.[1] 이어 『임원경제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그간

접수▸2013년 10월 24일 수정▸2013년 10월 24일 채택▸2013년 11월 20일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 "고문헌 기반 <한의고전지식DB서비스> 개발(K1311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교신저자▸ 오준호,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483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 042-868-9317 Fax : 042-863-9463 E-mail : junho@kiom.re.kr

답습되오던 미키사카에의 '조선 후기 본초학 쇠퇴론[萎靡]'을 반박하였다.[2] 한편, 권오민 등은 『본초강목』과 밀접히 연관된 서적으로 『본초유함』을 알리고, 이 책이 『본초강목』이 한국적 토양에서 내재화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서라고 설명하였다.[3] 마지막으로 박상영은 '재인용'을 고려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통해 『인제지』를 분석하고, 『인제지』에 인용된 『본초강목』의 내용이 기존에 알려진 것 보다 더욱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4] 이상의 연구들은 『본초부방편람』, 『본초정화』[5], 『본초유함』, 『인제지』(혹은 『임원경제지』) 등 『본초강목』의 내용을 많이 수용했다고 알려졌거나 새롭게 알려진 서적을 중심으로 각자의 논의를 전개해 나갔다.

이상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서적들은 공통적으로 『본초강목』의 지식들을 상당히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로 된 텍스트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본초강목』과 같이 방대한 텍스트 안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 의가들은 『본초강목』에 실려 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어떻게 자유자재로 취사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었는가?"하는 의문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본초강목』이 전래된지[6] 한참 뒤인 19-20세기에 일군의 의학자들은 산발적이면서도 공통적으로 『본초강목』을 가지고 어떤 작업에 몰두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본초강목』 재구성하기'라고 지칭한 이 작업은 『본초강목』에 실린 부방(附方)들을 병증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거치면 '본초서'의 지식들은 '처방서'의 그것으로 면모하게 된다. 이 작업은 이미 황도연이 『본초부방편람』 편찬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밝혀 놓은 바 있다. 하지만 본고는 이 작업이 2세기에 걸쳐 조선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여 조선 후기 『본초강목』이 내재화된 과정을 좀 더 거시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한다.

1. 『본초강목』과 19세기 3종의 조선의서

19세기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저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3종류의 책들이 있다. 『본초유함(本草類函)』(1833), 『본초부방편람(本草附方便覽)』(1855), 『본초방(本草方)』(1860?)이 그것이다. 선행논문에서 논의 되었듯이 『본초유함』과 『본초부방편람』은 『본초강목』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서적들이다. 지금까지 학계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본초방』 역시 내용 분석 결과 『본초강목』의 의학지식을 수록한 서적이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각각의 서적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현재덕(玄在德, 1771-?)[7]이 저술한 『본초유함』은 13책 21권의 거질로서, 필사본 형태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8] 수정을 위해 저자가 붙여 놓은 기록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어 가독성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보존 상태마저 양호하지 않아 그간 내용을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저자가 책을 계속 수정하고 있었다는 점, 이어 만들어진 『본초유함요령』이 『동의보감』의 질병 이론을 상당히 잘 정리해내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저자가 일생의 저작으로 집필 중이었던 역작임을 알 수 있다. 『본초유함』이 처방집이라면, 자매서라고 할 수 있는 『본초유함요령』은 질병론이라고 할 수 있다.[9] 『본초유함요령』에서는 『동의보감』의 의론들을 축약하여 의학이론을 개술하였고, 『본초유함』에서는 『본초강목』의 부방들을 병증에 따라 정리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본초부방편람』은 조선 후기 활약했던 황도연(黃度淵)[10]의 저작으로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본초부방편람』 역시

1) 오재근, 김용진. 「조선후기 『본초강목』의 전래와 그 활용: 『본초정화』, 『본초부방편람』을 중심으로」. 의사학. 2011;20(1):29-51.
2) 오재근. 「『본초강목』이 조선 후기 본초학 발전에 미친 영향 : 미키 사카에의 『임원경제지』 본초학 성과 서술 비판」. 의사학. 2012;21(2):193-225.
3) 권오민, 차웅석, 박상영, 오준호, 안상우. 「『東醫寶鑑』과 『本草綱目』의 한국적 專有와 조선후기 의학 특징의 형성 : 『本草類函』과 『本草類函要領』을 중심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1;17(3):17-24.
4) 박상영. 「「인제지」의 조선후기 의사학적 위상과 의의; 미키 사카에의 "재인용[孫引]" 지적과 "학술가치" 평가에 대한 재검토」. 한국실학연구. 2013;25:531-575.
5) 『본초정화』와 관련해서는 김홍균의 연구가 자세하다. 김홍균. 「『本草精華』의 解題에 관한 醫史學的 접근」. 한국의사학회지. 2011;24(2):25-55.
6) 오재근이 밝힌 바에 따르면 『본초강목』과 관련 있는 조선의 문헌 기록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이른 것은 1690년 서문중(徐文重, 1634-1709)의 『연행일록(燕行日錄)』이며, 내용의 직접적인 인용을 기준으로 보면 1710년경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의 『산림경제(山林經濟)』이다. 하지만 오재근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본초강목』이 일본에 전래된 1607년보다 한참 늦은 것으로, 1690년 이전에 이미 조선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오재근, 김용진. 위의 논문. 2011;20(1):29-51.
7) 저자 현재덕은 조선후기 문인이자 서예가로, 본관은 천녕(川寧) 자는 토설(土說) 초명은 현응원(玄應遠)이다. 그는 19세에 정조 13년(1789)에 실시한 시유식년시(己酉式年試) 의과에 합격하였고, 규장각·내의원·무관외직을 거쳤다. 그는 말년인 1833년 『본초유함』의 초고를 완성하였다.
8) 온라인에서 서적을 열람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미상. "고도서"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search/Search.jsp?fn=&search_word=&searchtype=0&mode=all&mType=0&searchText=&sobj=0&startdate=&enddate=&keywordtext=%EB%B3%B8%EC%B4%88%EC%9C%A0%ED%95%A8&sopt=>.(2013.10.22)
9) 『본초유함』 및 저자 현재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권오민, 차웅석, 박상영, 오준호, 안상우. 앞의 논문. 2011;17(3):17-24.

14책 28권의 방대한 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의보감(東醫寶鑑)』과 『본초강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문에서 저자는 "『본초침선(本草鍼線)』으로 『동의보감』의 미비한 점을 보충하였다"[11]고 하였고, 번례(凡例)에서는 "『침선』의 병증 분류법이 『동의보감』과 달라 이미 사용법이 익숙한 것만 못하므로 『보감』의 목차를 위주로 하되 한두 가지 혹은 서너 가지를 합해서 분속시켜 놓았다"[12]라고 하였다. 책을 만드는데 주요하게 사용되었다는 『본초침선』은 채열선(채열선)의 『본초만방침선(本草萬方鍼線)』을 가리킨다. 이 책은 '『본초강목』 재구성하기'의 핵심이 되는 서적으로,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마지막으로 『본초방』이 있다.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 서적으로,[13] 이성우의 『식경대전』에 언급되었을 뿐이다.[14] 이성우는 저자를 이중곤(李重坤)으로 밝히고, 성서연대를 경신년(庚申年, 1860)으로 추정하였다. 그는 "症狀別로 症狀과 藥處方을 들고 引用書名을 적어 놓은 一大 勞作이다."라고 평가 하였으나[15] 이후 학계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다.

중요한 점은 이들 서적들의 내용과 형식이 매우 유사하는 점이다. 모두 대형 의방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병증에 따라 1-2가지 본초로 이루어진 처방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는 마치 『동의보감』의 단방(單方)이나, 경험처방을 모아 놓은 조선 후기 의방서들을 떠올리게 한다. 뿐만 아니라 병증의 분류 방식이나 동일한 병증에 대한 치료법 내용까지 세 서적 모두 대동소이하다. 이 세 서적이 모두 『본초강목』의 의학 정보를 소재로 삼고 있으니 내용이 비슷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 듯도 하지만, 병증의 분류에서 치료법의 나열 방식까지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는 점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그림 1, 표 1 참고)

표 1. 3가지 서적의 내용 비교 예시

서명	권	편명	첫 번째 병증	첫 번째 치법
『本草方』	卷之一	通治部 / 瘡疾門	寒熱瘧疾	"秋後霜一錢半, 熱酒服之. 集玄方"
『本草類函』	卷六	通治部 / 瘡疾門	寒熱瘧疾	"秋後霜一錢半, 熱酒服之. 集玄方"
『本草附方便覽』	卷之十九	瘡疾	寒熱瘧疾	"秋後霜一錢半, 熱酒服之. 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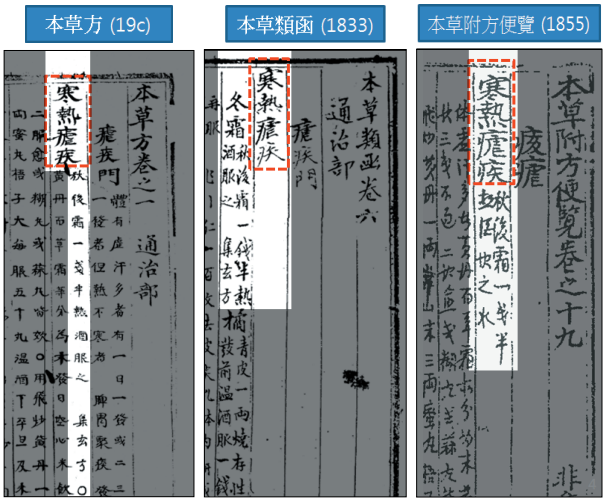

그림 1. 3가지 서적의 내용 비교 예시

이들 서적들은 모두 필사본들이며 유일본들이다. 따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게다가 저자들 사이에서도 이렇다 할 연결점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저자 혹은 서적 사이에 연관이 있었다면, 이렇게 동일한 작업을 거듭 되풀이한 이유가 더욱 모호해 진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었던 3가지 서적들에서 이런 공통점이 나타나는 것은 이들 서적들이 모두 『본초강목』에 실려 있는 부방(附方) 들을 병증에 따라 새로 편집한 것들

10) 황도연(黃度淵)은 조선 말기 한의사로 호는 혜암(惠庵)이며 본관은 창원(昌原)이다. 철종 때부터 고종 초기까지 서울 무교동에서 개업하여 명성을 얻고 의학서적의 저술로 의학의 대중화에 공헌하였다. 그의 저서로는 이 『부방편람(附方便覽)』외에, 『의종손익(醫宗損益, 1868)』『의방활투(醫方活套, 1869)』이 있고, 조선 의학계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방약합편』은 아들이 그의 유고를 정리하여 간행한 것이다.

11) "…… 乃依寶鑑精氣神, 以至百體隨證而蒐方, 又取蔡繭齋鍼線, 以備寶鑑之未備 ……" 황도연. 『(한국의학대계 권22)本草附方便覽』(영인본). 서울: 여강출판사. 1994:7.

12) "鍼線之分文, 析類與東醫寶鑑頗有不同, 未若習熟之便易者, 故一遵寶鑑." 황도연. 『(한국의학대계 권22)本草附方便覽』(영인본). 서울:여강출판사. 1994:11.

13) 온라인에서 열람 가능하다. 국립중앙도서관.(미상). "本草方" 디브러리. <http://www.dibrary.net/search/dibrary/SearchDetail.nl?category_code=ct&service=KOLIS&vdkvgwkey=1149701&colltype=DAN_OLD&place_code_info=153&place_name_info=%EB%94%94%EC%A7%80%ED%84%B8%EC%97%B4%EB%9E%8C%EC%8B%A4&manage_code=MA&shape_code=B&refLoc=portal&category=storage&srchFlag=Y&h_kwd=%EB%B3%B8%EC%B4%88%EB%B0%A9%7C&lic_yn=N&mat_code=RB>(2013.10.22)

14) 이성우는 8책 8권이라고 하였으나(청구번호: 한古朝68-25), 국립중앙도서관에는 11책 11권으로 이루어진 동명의 서적이 존재한다(청구번호: 한古朝68-33). 글자가 동일하고 내용도 상당부분 같은 두 질의 『본초방』은 같은 저자의 것임에 분명하지만,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우가 언급한 8책 8권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5) 이성우. 『식경대전』. 서울:향문사. 1981:497-498

이기 때문이다. 『본초강목』에는 본초를 ① 석명(釋名), ② 기미(氣味), ③ 주치(主治), ④ 발명(發明), ⑤ 부방(附方)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부방'은 해당 본초를 활용한 소규모 처방을 모은 것이다. 앞의 세 서적들이 취합한 것은 바로 이 '부방'들이다. 이시진은 부방을 해당 본초 말미에 배치해 놓았는데, 조선의 세 의가들은 이를 다시 병증을 기준으로 재정리하였다. 본초를 기준으로 한 치료법 리스트를 주치증을 기준으로 피벗(pivot)한 셈이다.

2. '『본초강목』 재구성하기'의 실재

이들 세 서적이 『본초강목』의 부방을 병증에 따라 재정리하는 동일한 목적의 작업을 수행 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서적들이 가지는 공통점을 모두 설명하기는 힘들다. 『본초강목』에는 1892종의 약재에 11096수에 달하는 방대한 부방이 실려 있어 편저자에 따라 결과물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서적들은 이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어떻게 전혀 새로운 형태로 편집해 낼 수 있었을까? 이들 서적의 성립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본초만방침선(本草萬方鍼線)』(1652)이라는 서적의 도움이 숨어 있다.

『본초만방침선』은 채열선(蔡烈先)[16]이 1712년(강희 51)에 찬집한 서적으로 『본초강목』「부방」을 병증에 따라 분류 편성한 일종의 색인서이다. 서명에 보이는 "本草"는 "本草綱目"을, "萬方"은 본초강목에 실려 있는 모든 부방을, "鍼線"은 색인[Index]을 의미한다. 이 책은 통치부(通治部)·외과(外科)·여과(女科)·아과(兒科)·상부(上部)·중부(中部)·하부(下部) 7부(部)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 105문(門)을 두어 부방 전체에 언급된 병증들을 재정리하고, 병증에 해당하는 부방이 기재되어 있는 『본초강목』의 권수와 편수를 기재하였다.(그림 2,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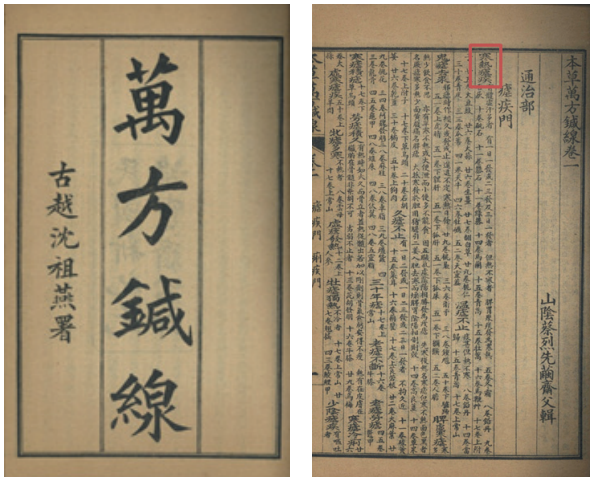

그림 2. 『본초만방침선』의 내용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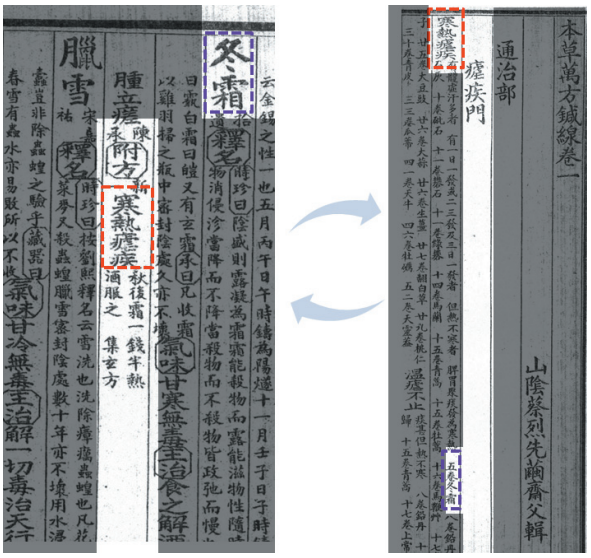

그림 3. 『본초강목』과 『본초만방침선』의 관계

『본초만방침선』이 유용한 책이기는 하지만, 조선후기 의사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흔하게 유통되던 책은 아니었다. 이런 시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었던 『본초강목』의 판본들이 『본초만방침선』을 부록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8세기 중기부터 간행된 대부분의 『본초강목』은 이 『본초만방침선』을 권말에 부록으로 싣고 있었다. 『본초강목』의 판본 가운데 큰 줄기를 형성한 것으로 태화당본(太和堂本)과 합비본(合肥本)을 든다. 『본초만방침선』은 18세기 이후 간행된 태화당본의 이본들에 부록으로 실렸으며, 자연스럽게 합비본과 그 이본들에도 부록으로 실리게 되었다.[17](그림 4 참조)

16) 채열선(蔡烈先)은 청대(淸代) 활동했던 의가로 생몰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자(字)가 승후(承侯), 호(號)는 견재(繭齋)로 절강(浙江) 산음현(山陰) 사람이다. 李云. 『中医人名辞典』. 北京:国际文化出版公司. 1988:924

따라서 19세기 조선의 의학자들이 열람한 『본초강목』 판본에는 대부분 『본초강목』의 부방 색인집이라고 할 수 있는 『본초만방침선』이 부록으로 함께 실려 있었으며, 세 서적의 저자들은 각기 '『본초강목』 재구성'을 시도하면서 모두 『본초만방침선』을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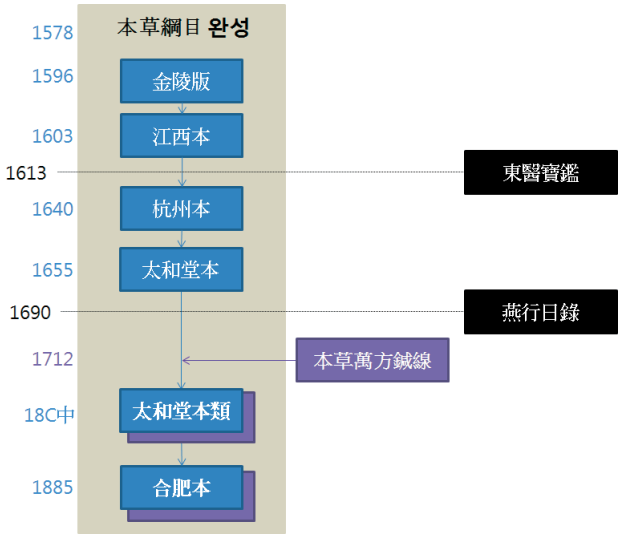

그림 4. 『본초만방침선』의 『본초강목』 수록

3. 20세기로 이어지는 '『본초강목』 재구성하기'

19세기에 나타난 증상 중심의 『본초강목』 재구성 작업은 20세기에도 몇 차례 더 이루어진다. 1928년 간행된 『양무신편』과 『수세비결』이 그것이다. 『양무신편(兩無神編)』은 남재철(南載喆)[18]이 정묘년(1921) 무더위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목도하고 이를 계기로 저술한 의학서적이다.[19] 『수세비결(壽世秘訣)』은 동시대 이창우(李昌雨)의 저술로, 70여 년 동안 자신이 축적한 의학 경험을 모은 저술이다.[20] 두 서적은 구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책의 주된 치법을 『본초강목』의 부방에서 가져왔으며, 『본초만방침선』을 주요 참고 자료로 삼았다는 점에서 앞의 서적들과 유사하다.

20세기 서적들이 19세기 서적들과 다른 점은, 후자의 책들이 『본초강목』의 부방을 그대로 전사한데 반해 전자는 내용을 축약하고 정리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양무신편』과 『본초방』은 좋은 예이다. 두 책은 모두 『본초만방침선』의 목차를 따라 7부(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본초방』이 『본초강목』의 원문을 되도록 그대로 전사한데 반해, 『양무신편』은 내용을 취사선택하고 어의를 줄여 서술하였다. 『본초방』이 '본판'이라면, 『양무신편』은 '요약판'에 해당한다.

한 가지 부연해야할 점은, 이들 서적이 편집 양태에 따라 양분된다는 점이다. 『본초만방침선』의 구성을 그대로 둔 채 부방을 재구성한 『본초방』·『양무신편』에 비해, 『본초유함』·『본초부방편람』·『수세비결』은 『동의보감』이라는 익숙한 병증 체계를 차용했다. 『본초부방편람』은 서문과 범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동의보감』의 목차를 기준으로 병증을 배열하였으며, 『본초유함』 역시 변형되기는 하였지만 『동의보감』 목차의 흔적이 많다. 마지막으로 『수세비결』의 경우는 『방약합편』의 「활투침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활투침선」이 『동의보감』의 목차를 염두한 것이기 때문에 『수세비결』의 목차 역시 『동의보감』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큰 이질감 없이 이해된다.(표 2 참조)

표 2. 『본초강목』을 재구성한 서적 비교

목차구성 / 연대	『동의보감』 영향	『본초만방침선』 영향
19세기	『본초유함』, 『본초부방편람』	『본초방』
20세기	『수세비결』	『양무신편』

Ⅱ. 맺음말

지금까지 19-20세기에 걸쳐 조선 의학계에서 '『본초강목』 재구성하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서적들 사이에 공통점이 많은 것은 이들 서적들이 모두 『본초강목』에 실려 있는 부방(附方)들을 병증에 따라 새로 편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채열선(蔡烈先)이 편찬한 『본초만방

17) 石长拴, 王玉洁. 「≪本草纲目≫主要版本的演变图解」. 时珍国药研究. 1991;2(4):145-147.
李载荣. 「≪本草纲目≫版本流传研究」. 北京中医药大学(博士学位論文). 2005:25-27.

18) 남재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울진군지』에 "호(號)는 천청(天聽)이며 목사(牧使) 남회(南薈)의 후예로 나면서부터 총명하였고 학문이 신구를 겸비하였으며 신무양편(神無兩篇)[양무신편의 오기]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최중국(崔重國), 남식영(南湜英), 남필호(南弼鎬), 전영휴(田永休), 주백원(朱百源), 남용일(男容一), 장영전(張永銓), 주진락(朱鎭洛) 등과 더불어 고향산(古香山)을 본받아 모향계(慕香契)라 하니 한때 명성이 높았다."라고 되어 있다. 김남일. 『국역 양무신편』「『양무신편』 해제」.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07:476.

19) 『양무신편』은 1928년 탈고되어 1931년 강원도 울진군 소재 태화당인쇄소(泰和堂印刷所)에서 연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20) 『수세비결(壽世秘訣)』 역시 1928년 탈고되었고, 1929년에 연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침선』(1712)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시대적으로 보면, 19세기 의서들이 정보를 정리하는데 집중한데 반해 20세기 의서들은 취사선택하고 변형하는 노련함을 보인다. 이는 『본초강목』이 조선에서 어떻게 전유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다룬 '『본초강목』 재구성하기'가 가지는 함의를 몇 가지 정리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이 작업들은 『본초강목』에 대한 당시 의학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김두종이 조선의 의학유파로 '보감파(寶鑑派)', '정전파(正傳派)', '회춘파(回春派)', '입문파(入門派)'[21]를 언급하였을 정도로 조선에서는 『동의보감』, 『의학정전』, 『만병회춘』, 『의학입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열독하였다. 하지만 '『본초강목』 재구성하기'는 조선 후기 어느 시점부터 이들 서적 이외에 『본초강목』이 조선 의학계의 중요한 텍스트가 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관심의 초점을 '부방'에 두었기 때문에 그간의 추측과는 달리 본초서임에도 임상에 적지 않게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작업들은 조선 의학의 실용적인 학풍을 잘 나타낸다. 조선의 의가들은 본초서라는 측면이 아니라 처방집이라는 측면에서 『본초강목』을 접근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본초에 대한 지식 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병증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더 큰 관심을 두었다.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2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재구성' 작업의 유사성은 이러한 인식이 상당히 보편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실용적인 조선의 학풍은 이렇게 본초서라는 관념을 깨고 『본초강목』에 처방집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였다.

셋째, 이 작업들은 조선 후기 의학사에서 『본초강목』의 위상과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경험방서들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한다. '『본초강목』 재구성'과 관계없는 서적이라고 하더라도 『본초강목』과 관련된 대부분의 의서들은 '부방'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였다. 『인제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렇다면 『본초만방침선』이 편집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 부방이 『본초강목』에서 추출된 이후에는 각종 경험방서들에 산입되어 유전되었을 것이다. 추측컨대 조선 후기 경험방서들에 언급된 단방·경험방·간이방들에는 『본초강목』 부방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후기 『본초강목』의 영향은 지금까지 알려진 몇몇 인용서적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매우 광범위해진다. 『본초강목』 '부방'으로 전해진 치료법이 조선 후기에 어떻게 확산되어 소화 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넷째, 이 작업들은 한국 의학사에서 『본초강목』에 대한 논의가 지성사적 측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조선 후기 지식인의 시야는 급격히 확장되었다. 『임원경제지』, 『오주연문장전산고』 등 이 시기에 만들어진 유서(類書)들은 그러한 현상을 대변해 준다.[22] 19세기 이루어진 '『본초강목』 재구성하기'는 이러한 유서 편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의학과 『본초강목』의 관계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조선 후기 지성사의 맥락 위해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권오민, 차웅석, 박상영, 오준호, 안상우. 「『東醫寶鑑』과 『本草綱目』의 한국적 專有와 조선후기 의학 특징의 형성 : 『本草類函』과 『本草類函要領』을 중심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11 ; 17(3) : 17-24.
2. 김남일. 『국역 양무신편』「『양무신편』 해제」. 대전 :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3. 김두종. 『한국의학사』. 서울 : 탐구당. 1981.
4. 김홍균. 「『本草精華』의 解題에 관한 醫史學的 접근」. 한국의사학회지. 2011 ; 24(2) : 25-55.
5. 박상영. 「「인제지」의 조선후기 의사학적 위상과 의의; 미키 사카에의 "재인용[孫引]" 지적과 "학술가치" 평가에 대한 재검토」. 한국실학연구. 2013 ; 25 : 531-575.
6. 石长拴, 王玉洁. 「≪本草纲目≫主要版本的演变图解」. 时珍国药研究. 1991 ; 2(4) : 145-147.
7. 심경호. 「한국 류서(類書)의 종류와 발달」. 민족문화연구. 2007 ; 47 : 85-137.
8. 오재근, 김용진. 「조선후기 『본초강목』의 전래와 그 활용: 『본초정화』, 『본초부방편람』을 중심으로」. 의사학. 2011 ; 20(1) : 29-51.
9. 오재근. 「『본초강목』이 조선 후기 본초학 발전에 미친 영향 : 미키 사카에의 『임원경제지』 본초학 성과 서술 비판」. 의사학. 2012 ; 21(2) : 193-225.
10. 이성우. 『식경대전』. 서울 : 향문사. 1981.

21) 김두종. 『한국의학사』. 서울:탐구당. 1981:264.
22) 심경호. 「한국 류서(類書)의 종류와 발달」. 민족문화연구. 2007;47:85-137.

11. 황도연.『(한국의학대계 권22)本草附方便覽』(영인본). 서울 : 여강출판사. 1994.
12. 李载荣.「≪本草纲目≫版本流传研究」. 北京中医药大学(博士学位論文). 2005 : 25-27.
13. 李云.『中医人名辞典』. 北京 : 国际文化出版公司. 1988 : 924.
14. 국립중앙도서관.(미상). "本草方" 디브러리. <http://www.dibrary.net>(2013.10.22)
15. 한국학중앙연구원. 미상. "고도서"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2013.10.22)